

강렬하고 역동적인 벤츠, 완판 행진 잇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스페셜 3월 모델을 공개, 한정 판매에 나선다. 사진은 3월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 다이내믹' 레드 블로섬 모델(왼쪽)과 골든 데이라이트.



'AMG GT 43 4매틱+ 다이내믹' 레드 블로섬·골든 데이라이트 23대 벤츠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 3월 스페셜 모델 온라인 스토어에 공개



메르세데스-벤츠가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MATIC)+ 다이내믹' 레드 블로섬과 골든 데이라이트 모델을 한정 판매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스페셜 3월 모델로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 다이내믹 레드 블로섬과 골든 데이라이트를 각각 10대, 13대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매달 20일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스페셜 모델을 한정수량으로 판

매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 다이내믹'은 메르세데스-AMG의 4-도어 쿠페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의 다이내믹 모델이다.

AMG 다이내믹 플러스 패키지와 AMG 전자식 리어 액슬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등 기능이 추가된 역동적인 성능과 감성을 담아낸 모델로, 강렬한 역동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선보이는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여기에 감각적인 내·외장 컬러 조합과 함께 AMG 요소를 추가했다고 벤츠코리아는 전했다.

우선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 다이내믹 레드 블로섬' 모델은 강렬한 분위기의 마누팩투어 파타고니아 레드 외장 색상이 도회적인 느낌을 주는 네바 그레이 색상의 마누팩투어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 시트와 독특한 대비를 이룬다. 봄을 맞아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을 연상시킨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 다이내믹 골든 데이라이트'는 세련된 마누팩투어 칼라리 골드 마그노 외장 색상에 부드럽고 따뜻한 트러플 브라운 컬러의 마누팩투어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 시트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AMG만의 감성과 주행성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도 함께 추가됐다.

AMG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탑재돼 속도가 100km/h 이상인 경우 전륜과 후륜의 각도가 같은 방향으로 최대 1.3도까지 조향이 가능해 보다 민첩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AMG 라이트 디스플레이는 승·하차 시 AMG 로고를 노면에 투사해 AMG만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판매가격은 레드 블로섬 모델 1억8687만원, 골든 데이라이트 모델 1억9167만원이다.

박양원 벤츠코리아 제품전략기획팀 상무는 "이번 3월 온라인 스페셜 모델인 해당 차량은 따뜻한 봄날과 어울리는 특별한 색상의 조합이 인상적이다"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첫 온라인 스페셜 모델로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580 4매틱 블루 스타 더스트 나이트' 24대를, 2월에는 '더 뉴 EQS 450 4매틱 SUV 온라인 스페셜' 12대를 한정수량 출시한 바 있다. 이들은 판매 개시 이후 각각 1시간 30분, 30분 만에 계약이 완료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GGM 직원 300명이 최근 'GGM 상생봉사단'을 창단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GM 제공)

“지역사회와 동행” GGM 상생봉사단 출범

300여 직원들, 소외계층 지원·환경보호 등 앞장서기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다.

GGM은 최근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GGM 상생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상생봉사단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직원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인 봉사 활동과 함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봉사 활동을 펼친다.

주요 장애인 단체나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상시적인 환경보호 활동은 물론, 수해나 가뭄 등 천재지변이 발생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4월 봄맞이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으로 5월 사랑나눔 헌혈 행사, 여름 장마철 수해복구 지원 사업(수해 발생 시), 9월 하반기 환경보호 활

동, 11월 겨울철 소외계층 연탄 지원, 12월 소외계층 감장나눔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상생봉사단 단장을 맡은 오순철 경영지원본부장은 "상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고 있는 GGM의 상생봉사단 출범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소외계층과의 행복한 동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 상생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해 소외계층 봉사 지원, 환경보호 활동, 수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쌍용차, 토레스 전동화 모델 '토레스 EVX'로 확장

쌍용자동차가 프로젝트명 'U100'으로 개발해 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전동화 모델의 명칭을 확정하고 이미지를 공개했다.

쌍용차는 토레스 SUV 모델 차명을 '토레스 EVX' (사진)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통 SUV를 추구하는 토레스의 강인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에 전기 자동차를 의미하는 EV와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는 익스트림(eXtreme)의 X를 더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토레스 EVX에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수평형 도트 스타일의 발광다이오드(LED) 주간

주행등(DRL)을 적용해 전기차만의 차별적 정체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면부의 토잉(견인 연결고리) 커버는 태극기의 건곤감리(乾坤坎離) 중 리 문양을 형상화해 쌍용차가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실내에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됐다.

토레스 EVX는 703ℓ (T5 트림 839ℓ)의 트렁크 공간을 갖췄고, 기존 전동화 모델 대비 높은 지상고도 오프로드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 특징이다.



쌍용차는 오는 30일 프레스 데이를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토레스 EVX 실차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웅장하고 고급지다 '더 기아 EV9'

기아, 대형 전기 SUV 디자인 공개... 넉넉한 3열 공간 눈길

기아가 '더 기아(The Kia) EV9' (사진) 디자인을 최근 공개했다.

20일 기아에 따르면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대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이다. 고객에게 전에 없던 이동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기아 전동화 SUV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기아는 덧붙였다.

EV9은 웅장하고 고급스러우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를 갖췄다.

전면부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과 다양한 조명이 어우러져 완성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EV9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아 전동화 모델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내연기관의 그릴을 대체하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은 비점등 시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깔끔한 인상을 강조,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작동 시 그릴 위로 여러 개의 조명이 다양한 패턴으로 운전자를 반겨 줌과 전동화 느낌을 더했다.

그릴 양 옆에는 여러 개의 작은 정육면체로 구성된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별자리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맵 LED DRL(주간주행등)'로 조화를 이뤘다.

차량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측면부는 정통 SUV의 웅장함을 전달하도록 디자인했다.

실내는 E-GMP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설계로 바닥이 평평하고 휠 베이스가 길어 뛰어난 공간감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시트와 센터콘솔 도어 등 실내 구성 요소를 정제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해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또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타원형의 조형을 크래시패드와 도어 패널, 센터 콘솔에 적용해 통일감을 부여했으며, 사용성을 고려해 차량의 조작부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기아는 EV9에 각각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와 5인



치 공조 디스플레이를 한데 묶은 '파노라마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적용했다.

EV9은 세 개의 디스플레이가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마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탑승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차량 조작 버튼을 최적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이밖에 기아 최초로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SBW, Shift by wire)가 적용돼 시동, 주행, 주차 등 순차적인 차량 이용 과정에서 고객의 직관적이고 간결한 조작을 돕는다.

센터 콘솔은 최소화한 버튼 배치로 깔끔한 인상을 주고 하단부 수납함을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2열 승객을 위한 컵 홀더와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랍형 트레이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적용됐다.

2열은 벤치 시트와 독립형 시트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시트 구성이 가능하다.

특히 독립형 시트는 ▲1열과 2열을 휴식 자세로 변형해 탑승객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 릴랙션 시트 또는 ▲3열을 향해 내측 180도, 측면 도어를 향해 외측 90도 회전해 실내 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스위블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기아는 이달 말 온라인으로 EV9의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하고, 이어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실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